2007 베니스 비엔날레 관광객 32만명

"광주문화수도 '예술관광' 눈 돌려야"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이미숙씨 석사 논문

전시·공연 등 직접 관람이 세계적 추세

광주비엔날레·문화자원 연계 활용해야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와 같은 예술자원들을 활용한 '예술관광(Art tourism)'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수십여만 명의 관광객을 창출하는 것 처럼 예술관광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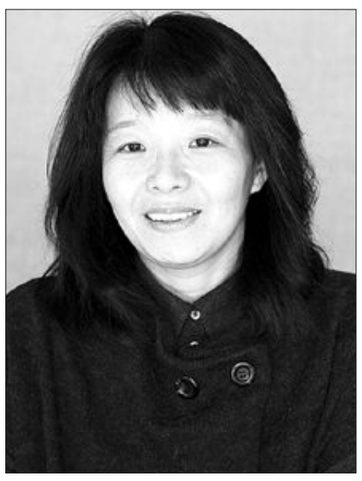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의 예술적인 가치를 이용한 '예술 관광(Art tourism)'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미숙(45)씨는 '예술관광에 관한 이론적 체계 모형 개발 연구'란 논문으로 오는 26일 석사학위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론인 예술 관광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를 보기 위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를 찾거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하기 위해 브로드웨이를 방문하는 관광을 말한다. 그동안의 관광이 수박겉핥기의 명승지 답사였다면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전시·공연 등을 직접 관람하는 예술관광이 대세라는 것이다.

"예술관광은 최근 주5일제 근무 이후 체험위주의 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별화된 회화, 조각, 음악, 공연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씨는 예술관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베니스 비엔날레를 꼽았다. 지난해 열린 '2007 베니스비엔날레'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31만9천332명이 베니스를 찾았으며 주변 섬 지역에서 열린 34개의 부대행사에도 65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예술관광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미숙씨는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문화전당, 양림동 근대건축물 등을 연계한 '예술 관광'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씨는 광주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 축제인 비엔날레를 통해 예술 관광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예술 관광을 위한 광주 비엔날레의 개선점으로 ▲도시 공간과 연계한 전시 ▲관광 체험 프로그램 제공 ▲비엔날레와 지역 예술인의 네트워크 상설화 ▲비엔날레 관광 코스 개발 등을 제안했다. 비엔날레를 광주시내 곳곳에서 개최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근대 건축물, 망월동의 관광 자원을 자연스럽게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 뮌스터시의 경우 도심 곳곳으로 이어진 자전거 도로 '프로메나데(Promenade)'를 만들어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도시의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씨는 ▲정부, 예술기업, 관광업체, 예술관광 연구소로 구성된 예술관광 거버넌스 구축 ▲예술 기업의 금융 및 세제 지원 ▲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관광 연구개발 중심 대학 선정·지원 등을 제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제길 작 'Work 99-1A'

빛과 색이 어우러진 단층

서양화가 우제길씨 개인전

21~3.14일까지 부산 한국아트홀

'빛'을 캔버스에 담고 있는 중진 서양화가 우제길씨가 오는 21일~3월14일까지 부산 한국아트미술관에서 'Light 565-2'전을 갖는다.

우씨는 이번 전시에서 'Light 565-2'를 주제로 밝고 따뜻한 원색을 폭넓게 배치함으로써 빛과 색이 어우러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인 'Light 565-2'는 그가 40여 년 동안 화두로 삼아온 빛(Light)과 전시공간인 한국아트미술관의 번지수를 결합한 것이다.

그는 '상모 놀이의 하얀 선의 율동'을 속도감 있는 빛으로 형상화하며, 빛의 섬세하고 다양한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우씨는 광주비엔날레, 현대국제 미술전에 참가했으며, 광주시민대상(예술부문), 현산문화상, 한국미협이사장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51-612-340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술지식과 픽션의 조화' 미술소설이 뜬다

우광훈씨 '베르메르VS베르메르' 등 1월 한달간 8권 출간돼

최근 유명 예술가나 예술작품을 소재로 한 팩션(faction·사실에 허구를 결합해 만든 새로운 이야기)소설들이 잇따라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반 고흐의 마지막 작품을 둘러싼 암투를 그린 '배반의 자화상'(문학수첩),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면서도 베일에 싸여 있었던 렘브란트의 일생을 다룬 소설 '렘브란트 반 라인'(랜덤하우스 코리아), 20세기 최고의 조형미술가로 손꼽히는 자코메티의 치열한 예술세계를 그린 '작업실의 자코메티'(을유문화사) 등 미술소설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 8권이 출간됐다.

한국 작가들도 예술가들을 소재로 한 색다른 추리소설들을 통해 한국 문학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전설적인 명화 위조범으로 유명한 반 메헤렌(1889~1947)의 삶을 '가브리엘 이벤스'라는 가공인물을 통해 재조명한 우광훈씨의 장편소설 '베르메르VS베르메르'(민음사)를 비롯해 위조미술품 제조단의 음모를 다룬 이은씨의 장편 소설 '미술관의 쥐'(예담)가 대표적이다.

소설 '베르메르VS베르메르'는 '진주 귀고리 소녀'로 유명한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베르메르의 위작 사건을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원작과 위작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당대의 예술가의 고뇌를 다뤘다.

'미술관의 쥐'는 미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짜 그림 거래와 실상을 정통 추리소설 기법으로 풀어가면서 예술이 갖추어야할 순수한 의지를 강조하고 예술이 지양해야할 부분을 보여준다. 특히 미술학 박사 출신인 저자 이은씨는 전공자답게 비전공자들이 접하기 힘든 미술계의 소소한 명암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전문가'가 쓴 '뒷이야기'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킨다.

이와함께 최근 이정명씨는 혜원 신윤복의 22편의 작품을 토대로 한 소설 '바람의 화원'에서 '신윤복은 여자'라는 대담한 상상을 펼치며 미술사의 통념을 뒤집는다.

장르문학 전문 저널인 '판타스틱' 관계자는 "회화작품과 문학작품의 결합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상상을 하거나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대중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친절한 조선사' 등 10권

2월의 읽을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가 2월의 읽을 만한 책 10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2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는 앙드레 고르가 아내에게 쓴 사랑의 편지인 'D에게 보낸 편지'(학고재), 역사 속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쓴 '친절한 조선사'(미루나무), 베토벤 음악을 재해석한 '베토벤, 그 거룩한 울림에 대하여'(서울대출판부), 영국 희귀본 거래업자가 초판본과 희귀본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한 '아주 특별한 책들의 이력서'(르네상스) 등이다.

또 장회익, 최종덕의 대담집 '이분법을 넘어서'(한길사), '시대정신 대논쟁'(아르케), '세계화?'(푸른나무),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양철북), '삼엽충'(뿌리와이파리), '안녕, 스퐁나무'(문학동네)도 2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됐다.

간행물윤리위 홈페이지 (www.kpec.or.kr) 참조.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화요예술무대 '봄의 향기 속으로'

광주문예회관 '허브' 공연

지난 6년 동안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는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그룹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그룹 내에 다양한 소규모 연주단체들이 꾸려지기 시작했다.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봄의 향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공연을 갖는 팀은 'Dill Trio'다.

허브의 메인 연주자인 바이올린 연주자 임정식과 오보에 연주자 방극만이 주축을 이룬 팀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문경미(피아노), 정진영(키보드), 권웅(콘트라베이스), 조유석(기타), 박종성(하모니카), 염종호(바리톤)씨 등이 함께 무대를 꾸미며 KBS어린이합창단이 특별 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봄의 소리 왈츠' 등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영화 '시네마 천국' 주제음악, 가요 'I Believe'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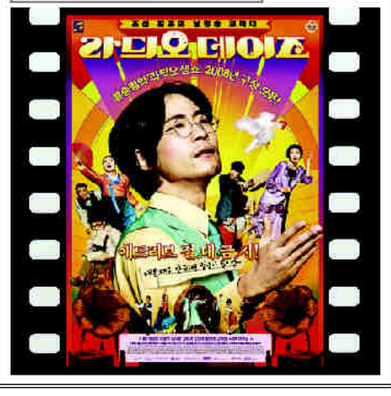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6년째 연애중 (15세) 최고급관
2관 더 게임 (15세)
3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체)
4관 마지막 선물 (15세)
5관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전체)
6관 엘리의모험(전체)/명장(18세)/6년째 연애중(15세)
7관 찰리 윌슨의 전쟁 (15세)
8관 라디오 데이즈 (12세)/더 게임 (15세)
9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광주점 무료팝콘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마지막선물(15세)
2관 우리생애최고의순간(전체)/라디오데이즈(15세)
3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4관 더 게임 (15세)
5관 6년째 연애중 (15세)
6관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전체)
7관 명장 (18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2월5일~2월9일 심야상영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한도시람 영화사람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더 게임 (15세)
2관 엘리의모험(전체)/라디오데이즈(12세)
3관 꿀벌대소동 (전체)/명장 (18세)
4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5관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전체)
6관 6년째 연애중 (15세)
7관 마지막선물(15세)/우리생애 최고의순간(전체)
8관 찰리 윌슨의 전쟁 (15세)
9관 마지막 선물 (15세)
10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체)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10개관) 절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라디오 데이즈 (12세)
1관 6년째 연애중 (15세)
2관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전체)
3관 6년째 연애중 (15세)
4관 명장 (18세)
4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체)
5관 마지막 선물 (15세)
6관 더 게임 (15세)
7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새벽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마지막 선물 (15세)
2관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전체)
3관 6년째 연애중 (15세)
4관 더 게임 (15세)
5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체)
6관 찰리 윌슨의 전쟁 (15세)
7관 라디오 데이즈 (12세)
8관 명장 (18세)/무방비 도시 (15세)
9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멀티플렉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6년째 연애중 (15세)
2관 원스 어폰 어 타임 (12세)
3관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전체)
4관 마지막 선물 (15세)
5관 우리생애최고의순간 (전체)/명장 (18세)
6관 라디오 데이즈 (12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